

대학입시제도의 변화과정과 수시-정시 전형의 주요내용 분석

이재태* · 문승한**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변화과정과 수시-정시 전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입시에 관심이 많은 학생-학부모-교사 등에게 입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1945년 이전의 입시제도와 이후의 입시제도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입시제도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2015학 년도의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대학입시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여 그 시대의 요구와 대학 자체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 개개인을 판단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제는 평가 과정상의 공정성이 중요하며, 학생-학부모-교사들에게 입시의 수월성 제공이 중요하다.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은 시기-모집단위-평가방법 등 학생들의 여건에 맞는 입학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지원자격의 제약조건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주제어: 대학입시, 수시-정시 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입학사정관제

* 경상대학교 입학사정관/ 교육학 석사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의 책임연구원(교신저자)

I. 서론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194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입시제도와 그 이후의 입시제도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이전의 입시제도는 신라시대의 입시제도, 고려시대의 입시제도, 조선시대 입시제도, 그리고 개화기의 입시제도로 구분(이만규, 2010)할 수 있다. 1945년 이후의 입시제도는 대학별 단독시험제, 국가연합고사와 본고사 병행제, 대학별시험과 무시험(내신제), 대학 입학자격고사제, 대학별단독고사제, 대학 입학예비고사와 본고사 병행제, 대학 입학예비고사와 내신제 병행제, 대학 입학학력고사와 내신제 병행제, 대학 입학학력고사와 내신제와 논술고사 병행제, 대학 입학학력고사와 내신제와 면접 병행제,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내신제와 본고사 병행제, 그리고 입학사정관제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제와 본고사 병행제 등으로 구분(강창동, 2007)해 볼 수 있다.

신라시대의 입시제도는 국학에 입학 연령을 15세에서 30세까지로 하고, 신분을 대사(大舍)로부터 무위자(無位者)로 규정한 것이 특징(박민정, 2006)이다. 고려시대의 입시제도는 국자감, 대학, 율학·서학·산학에 따라 입학자격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여은주, 2007)이다. 조선시대의 입시제도는 성균관의 입학자격을 생원과 진사로 정하고, 그 인원이 미달될 경우 소학에 능통한 자를 뽑아 충원한 것이 특징(황수미, 2012)이다. 개화기의 입시제도는 개화사상가에 의해 주도되었고, 종래 유교적 전통에서 벗어나 서구의 신문화를 받아들여 하였으며, 그 후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교육정책이 전개된 것이 특징(이만규, 2010)이다.

대학별 단독시험제는 총·학장회의에서 시험일시와 과목 등을 결정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 특징(김신복, 1998)이다. 국가연합고사와 본고사 병행제는 국가 주도의 국가연합고사를 실시하고 다시 대학별로 본고사를 실시한 것이 특징이다. 대학별시험과 무시험(내신제)는 총·학장회의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다(강병운, 2001).

대학 입학자격고사제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학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발표하면서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 입학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닌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별단독고사제는 대학의 총·학장이 법령과 대학입시 전형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 특징이다. 대학 입학예비고사와 본고사 병행제는 국가 주도의 대학 입학자격 국가고사제도를 통해 입학자격을 부여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자체적으로 본고사를 실시한 것이 특징(정미경, 1981)이다.

대학 입학학력고사와 내신제와 논술고사제 병행제는 국가 주도의 대학 입학학력고사와 고등학교 3년간의 성적, 그리고 대학별 논술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한 것이 특징(황정규, 1994)이다. 대학 입학학력고사와 내신제와 면접 병행제는 국가 주도의 대학 입학학력고사와 고등학교 3년간의 성적, 그리고 대학별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 것이 특징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제와 본고사 병행제는 국가 주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3

년간의 성적 및 비교과활동, 그리고 대학자체적으로 시행한 본고사를 실시한 것이 특징(강창동, 2007)이다. 입학사정관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그리고 내신제와 본고사 병행제는 입학생선발의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교생활기록부의 평가와 국가 주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고등학교 3년간의 성적, 그리고 대학자체적으로 시행한 본고사를 실시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화과정은 교육과정기(제5차 교육과정에서 제7차 교육과정)를 중심으로 학년도에 따라 다수의 변화를 하게 된 것이 특징이다. 2007 개정교육과정기와 2009 개정교육과정기의 경우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차 교육과정기의 수학능력시험은 200점 총점에서 400점으로 변경, 문항별 소수점 배점, 국립교육평가원 주관한 것이 특징(김신영, 2010)이다. 제6차 교육과정기의 수학능력시험은 등급제 도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한 것이 특징이다.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는 2008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언급된 본 연구의 취지와 필요성에 근거하여 설정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변화과정과 수시·정시 전형의 주요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입시에 관심이 많은 학생-학부모-교사 등에게 입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45년 이전의 입시제도와 이후의 입시제도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입시제도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2015학년도의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II. 대학입시제도의 분석

1. 1945년 이전의 입시제도

신라시대의 입시제도는 국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박민정, 2006). 신라 국학의 입학자는 15~30세의 연령으로, 대사(大舍)로부터 무위자(無位者)까지 신분의 사람만 입학가능 하였다. 고려시대의 입시제도는 국자감, 대학, 율학·서학·산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여은주, 2007). 고려의 국자감은 문·무관 3품 이상의 자손과 훈과 2품 대현공 이상 또는 경관 4품 대상품 이상 봉훈자의 아들만 입학이 가능하였다. 대학은 문무관 5품 이상의 자손과 정종 3품의 증손 또는 훈과 3품 이상 유봉자의 아들만 입학가능 하였다. 율학·서학·산학은 8품 이상의 아들과 서인, 7품 이상의 아들만 입학가능 하였다.

조선시대의 입시제도는 성균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황수미, 2012). 성균관은 소과에 응시하여 생원(生員)과 진사(進士)가 되면 입학가능 하였다. 생원과 진사의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13세 이상의 향교나 4부학당의 생도로서 소학(小學)과 사서(四書)와 오경(五經) 중 1경(經)을 통하는자 중에서 뽑아서 보충하였다.

근대(1884년~1945년) 입시제도는 개화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근대교육운동은 유교적 전통에서 벗어나 서구의 신문화를 받아드리려는 개화 사상가들에 의해 전개되었다. 1884년부터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근대교육이 수용되면서, 선교계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885년에 배제학당, 1886년에 이화학당이 설립되면서 제도화된 입학시험 없이 소수의 학생을 임의로 선발하였다. 1886년에 육영공원이 설립되면서 고관의 친족 자제를 입학생으로 선발하였다. 육영공원의 좌원(左院)은 문무 관리를 입학시키고, 우원(右院)은 재주가 있는 선비를 입학시켰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신학제의 제정과 관학이 성립되었다. 1895년 한성사범학교는 본과 정원 100명, 속성과 정원 60명으로 설립되었다. 본과에서는 연령이 20세-25세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학생을 선발하였고, 속성과에서는 연령이 22세-35세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학생을 선발하였다.

2. 1945년 이후의 입시제도

1945년~1953년의 입시제도는 대학별 단독시험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강창동, 2007). 대학별 단독시험제는 학생선발의 권한이 대학에 있었으며, 입학시험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대학별로 단독 출제한 것이 특징이다. 광복 후 대학입시의 주요관점은 입학생의 자격에 관한 것이었다. 미군정시대에는 학생들의 수학 년한에 따라 입학자격을 부여하였다. 전문부 3년 졸업자는 대학 학부 2학년에 입학되었다.

미 군정기에는 대학경영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총·학장회의를 구성하고 대학운영의 개선을 협의하는 것이 정례로 되었다(김종철, 1989). 따라서 미군정기의 대학입시정책은 총·학장회의에서 모든 것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자율적 과정을 거쳤고, 정부수립 후에는 대학으로 모든 것이 일임되었다. 1950년대 초기의 입학자 선발방법은 전기 학교와 후기 학교로 나누었고, 필기시험을 주로 채택하였다.

1950년대 초기의 대학 입학 지원자는 매년 증가하였는데 당국은 입학생 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집하여 자연과학계 학과는 정원대로 모집할 수 있었던 반면 인문과학계와 사회과학계는 제한모집(강창동, 2007)하였다. 당시의 대학입시제도는 어수선한 정세와 허술한 입시관리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수가 적어, 무자격자에 대한 입학허가와 6.25 동란중의 대학생 병역 특전으로 인해 부정입학이 성행하였다.

1954년은 국가연합고사와 본고사를 병행하였다(강창동, 2007). 1953년 8월 15일, 정부는

부산에서 서울로 환도하면서, 사회를 안정시킴과 동시에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대학입시 부정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54년에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대학 입학자 선발고사위원회의 주관 하에 국가연합고사를 실시하고 다시 대학별로 본고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대학 입학 국가연합고사는 일종의 예비시험으로 대학수학능력 자격검증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1954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한 국가연합고사는 총 2만 9,000여 명의 지원자 중 2만 4,000여 명이 합격(남혜영, 2002)되었고, 각 대학에서는 이 성적을 활용하여 입학학을 허가하려 하였다. 1955년-1961년의 입시제도는 대학별 시험제도와 내신제(무시험)를 병행하였다(강창동, 2007). 1955년에 대통령령으로 「대학설치기준령」이 공시되면서 대학입시제도가 대학별 선발제도로 변화 되었다. 대학별 시험에서 필기시험 과목은 대학에서 선정하여 고시하였고, 대부분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필수 네 과목, 학생선택한 과목 이상으로 정했다. 그로인해 각 대학의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에 따라 입시준비 교육이 성행하였다. 모집정원은 인가된 정원 이내로 하되 경우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초과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57년 9월 11일, 문교부는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전국 12개 국·공립 대학총(학)장회의에서 합의를 통해 1958년의 12개 국·공립 대학 입학전형을 시험제와 무시험제로 나누되, 대학별 시험제의 경우는 고등학교 3년간의 성적 30%, 입학시험 성적 70%로 합격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무시험의 경우는 입학정원의 10%를 입학시킬 수 있었다.

1962년-1963년의 입시제도는 대학입학자격고사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강창동, 2007). 5·16군사혁명 이후 정부는 대학에 대한 불신과 강력한 통제를 전제로 하는 정책을 폈다. 1961년 8월에 공포된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학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거하여 1962년부터 대학입시는 국가자격고사제로 시행되었다. 동법은 제1조의 목적에서 교육의 정상화와 질적 향상을 기하고 지방교육기관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문교부는 동법 제1조의 목적과 다르게 대학 입학자격 국가고시 및 서류전형에 관한 일을 장악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입학고사 중앙위원회를 두고 서울특별시 및 도에 입학고사 지구위원회를 두었다.

대학 입학국가자격고사제의 과목 및 출제 범위는 당시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필수교과와 선택과목의 내용 및 범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필수교과는 국어, 사회(일반사회, 도덕, 국사), 수학,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한 과목 선택), 실업·가정(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정 중 1과목 선택) 및 영어로 여섯 과목이고, 선택과목은 계열별로 지정한 여섯 과목 중에서 1과목을 선택 하였다.

결과적으로 5·16 군사정부는 대학교육에 직접 관여하였다. 왜냐하면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질적인 향상을 위한 필수요건이 대학의 정비와 더불어 우수한 자질의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63년에는 국가고사는 대학 입학 자격 여부만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전형요소로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에 위배되는 처사라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여기에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라면 대학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63년 4월 「대학의 입학에 관한 입시조치법」을 폐지하였다.

1964년-1968년의 입시제도는 대학별 단독시험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강창동, 2007). 군사정부가 민정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입학에 관한 입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대학별 단독시험제가 환원되었다. 정부에서는 대학 입학시험이 공공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교육 적격자를 선발(강병운, 2001)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필기시험 이외에 전형적성검사, 신체검사, 면접을 함께 실시하였고, 각 대학의 총·학장이 법령과 문교부에서 시달한 전형지침에 따라 실시하였다. 전형기일은 총학장이 전·후기 중 택일해서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필답고사·신체검사 및 면접으로 그쳤다. 필답고사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였다. 해당 과목들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시간배당기준령에 의해서 결정하였다.

각 대학의 총·학장은 입학자모집요강을 작성하여 공고 10일 전에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모집 요강에는 ①모집 정원 ② 입시과목 ③전형기일 ④제출서류 ⑤전형방법 및 납입금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과 문교부 지침에 의하여 각 대학(교)의 총·학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형방법에 따라 법률과 문교부지침의 범위 안에서 각 대학별로 개성 있는 선발방법을 실시하였다.

1969년-1980년의 입시제도는 대학 입학예비고사와 본고사를 병행하였다(강창동, 2007). 이 제도는 1960년대 초 대학 입학자격 국가고사제도의 부활이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기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학 입학 국가고사는 자격고사와 선발고사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대학 입학 예비고사는 대학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일정 수를 선발하여 그들에게 대학별 본고사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격시험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대학 입학자격 예비고사의 실시는, 첫째 국가가 통일된 기준 아래 대학교육에 알맞은 인재를 골라 대학의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둘째 사학의 학생정원 초과모집과 대학교육의 적성 무시로 인한 대학의 질적 저하를 막을 수 있으며, 셋째 국가의 인력수급계획에 비추어 국가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넷째 대학의 지역적 차이나 격차를 막을 수 있고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라 교육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각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기 전에 국가가 통일된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기초실력을 평가하여,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예비고사를 실시하였다.

1969년도부터 시행한 대학 입학예비고사제도는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계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에 적용되었으며, 그 다음해부터 모집정원의 1.5배를 합격시켰다. 예비고사의 교과목은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실업·가정 등이었고, 필답고사는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되었다. 지학과 제2외국어는 장차 고등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 뒤에 추가하기로 하여 일단 제외하였다.

1971년 6월 15일 대학 입학 예비고사 종합평가교수단은 1969학년도부터의 대학 입학 예비고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학 입학 예비고사는 고교 및 대학교육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예비고사를 계속 실시함과 동시에 몇 가지 개선사항을 문교부에 건의하였다. 문교부는 1971년 11월 19일에 실시된 1972학년도 대학 입학 예비고사의 합격선을 종래의 150%선을 폐지하고 변동 합격률제를 적용하여 매년 성적에 따라 합격자수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1973년 2월 28일에 고등학교 및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3월 13일에는 그 시행 계획을 발표하여 1974년부터 입시제도가 다시 변경되었다. 즉, 예비고사와 본고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대학 입학 예비고사 합격률은 전국적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시·도 단위로 정하기로 하였다. 수험생은 2개 이내의 시도별 지원을 명시하여 예비고사에 응시하고 합격여부를 판정받게 되었다.

예비고사 합격자는 해당 시·도 내에 있는 대학의 본고사에 지원하여 응시하도록 하였다. 전형내용은 계열별로 요구되는 교과시험과 면접에 의하되 전형방법은 대학별로 고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선발기준은 예비고사성적(20% 이상)·내신성적(점차 반영)·본고사성적·면접·체력장성적(10%)을 종합하여 전형하도록 하였다. 1974년에 실시한 특기자 전형은 2차에 걸쳐 심사하였다. 1차 심사는 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고, 2차 심사는 대학 입학예비고사위원회 위원장이 담당하였다. 대학의 본고사에서 또 한 가지 새로운 경향은 입시과목을 줄이고 종래의 객관식 출제에서 주관식 출제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비고사성적 반영비율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문교부는 1974년부터 대학 입학 전형에서 예비고사성적을 20% 이상 반영하도록 규제하였다. 1977년에는 예비고사성적의 본고사 반영률이 최저 10.2%에서 최고 100%에 이르고, 전국 대학의 평균이 40.8%를 보이게 되었다. 각 대학교 본고사에서의 예비고사성적 반영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었다. 1976년도의 반영률을 살펴 보면 총 98개 대학 가운데에서 50% 이상의 13개 대학에 이르고 있으며, 20%-49%가 64개 대학이었다.

문교부는 1976년 8월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대학진학의 혜택을 넓혀 주기 위하여 「대학진학예비고사령」을 제정하고, 예비고사에 실업계 4개 계열을 신설하여 별도로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하였다. 대학 입학본고사에서는 이들의 필답시험을 면제, 예시성적과 고교내신성적 및 면접만으로 특별 전형하도록 하였다.

본고사의 전형방법은 총학장이 결정하되 입학시험의 전형방법과 관리를 다루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문교부는 선발요강 중 전형방법 및 권장사항으로서 “필답고사

의 문제형식은 가급적 객관식 위주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 8개 항목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0여년 정도 운영된 이 제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강병운, 2001)되었다. 첫째, 대학입시경쟁이 가열됐으며 입시위주의 교육이 성행하였다. 둘째, 재수생의 수가 1970년을 기준으로 1980년에는 4배정도 증가하였다. 셋째, 예비고사와 본고사의 실시로 인해 학생들의 입시부담이 가중되었다. 넷째, 입시과목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고등학교 교육의 비정상화를 초래하였다. 다섯째, 예비고사의 객관식 출제로 인해 암기식 교육을 조장하였다. 다섯째, 대학별 본고사 문제가 국어·영어·수학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난해한 문제로 인해 과열 과외를 성행하게 하였다.

1981년의 입시제도는 대학 입학예비고사와 내신제를 병행하였다(강창동, 2007). 그 당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학력주위는 대학별 본고사를 어렵게 출제하도록 부추기는 경향이 있었다. 대학별 본고사는 난이도가 매우 높아 구조적으로 과외를 받지 않으면 안될 정도였다. 왜냐하면 대학 서열화에 따라 시험 난이도가 형성되었으며, 정상적인 고등학교 학력 수준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과외 열기를 뜨겁게 점화시켰으며, 재수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0년 이른바 7·30교육개혁조치를 발표하면서 대학입시제도는 변혁시켰다. 핵심내용은 본고사 폐지와 고교 내신성적과 예비고사 성적으로 선발하고 궁극적으로 예비고사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전형형태는 예비고사 성적을 50%이상, 고교 내신성적을 20%이상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30%는 대학이 예비고사 성적 또는 고교 내신성적에서 자율적으로 선택반영하게 하였다. 전형 절차는 선시험→후지원을 하며, 모집시기는 전기·후기로 나누어 무제한 복수지원이 가능하게 하였다.

본고사가 폐지되면서 고교교육 정상화 및 교사 지위의 향상, 내신제를 통한 점진적 고교평준화 실현 등의 좋은 점도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별고사의 폐지와 선시험→후지원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과 정원미달 사태, 과열경쟁에 의한 탈락,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권 침해, 학생에 대한 전인적 평가의 미흡, 고교의 지역·계열·남녀 학교간의 격차를 무시한 동일수준의 내신성적평가 등이 문제(강병운, 2001)로 제기 되었다.

1982년-1985년의 입시제도는 대학 입학학력고사와 내신제를 병행하였다(강창동, 2007). 이 제도는 일종의 자격고사인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대학 입학 학력고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형요소에 포함시켰고, 대학 입학학력고사성적과 고등학교 내신성적으로 대학 입학 적격자를 선발하였다. 문교부는 대학 입학학력고사성적 50% 이상, 고등학교 내신성적 20% 이상으로 반영하는 지침을 시달하였다. 1982년도부터 고교내신성적의 반영 비율을 30% 이상으로 변경하고, 대학 입학학력고사의 합격선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학력고사성적과 내신성적의 기계적 합산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는 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1986년-1987년의 입시제도는 대학 입학학력고사와 내신제, 그리고 논술고사를 병행하였다(강창동, 2007). 국가는 이전 입시제도인 대입학력고사와 고교내신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자 의견수렴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학생선발권을 존중해 주고, 고차원적인 정신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된 교육개혁심의회는 10대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개혁방안의 특징적 내용은 대학별 논술고사를 실시하여 그 성적을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논술고사란 ‘창의력, 작문력 등의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탈교과적, 범교과적 성격의 논문식 시험을 총칭하여 말하는 것’이다.

1988년-1993년의 입시제도는 대학 입학학력고사와 내신제, 그리고 면접을 병행하였다(강창동, 2007). 교육개혁심의회는 대학입시경쟁의 과열과 사교육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별로 독자적인 입학전형방법 개발할 것을 권고하면서,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를 모색하였다. 대학입시제도 변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논술고사의 폐지로 인한 면접고사의 등장과 전시험→후지원이 선지원→후시험제로의 전환, 그리고 학력고사 문항에서 30%내외를 주관식으로 출제하는 것이다

전형방법은 일반계열은 대학 입학 학력고사에 고교내신성적 30% 이상을 반영 후 면접고사로 결정하였으며, 예·체능계열은 일반계열의 전형방법에 더하여 실기고사를 추가 실시하였다. 다만 면접고사를 점수화 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문제가 따르게 되었는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사범계학과를 포함)에서는 일반계열·예능계열과는 달리 면접고사 5~10%,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성적 5~10%에 더하여 실기고사를 통해서 전형하였다.

대학 입학 학력고사는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출제하되 전 과목에 걸쳐 주·객관식 혼용으로 했으며 주관식 출제비율은 전 과목의 30% 내외로 하였다. 주관식 문항 유형은 완성형과 단답형으로 하였다. 또한 객관식은 이해와 사고력 및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였고, 주관식은 완성형보다 단답형 위주로 출제하되 서술적 단답형을 많이 출제하였다.

1994년-2007년의 입시제도는 대학수학능력고사와 내신제, 그리고 본고사를 병행하였다(강창동, 2007). 대통령직속 심의기구인 교육개혁심의회는 ‘교육개혁종합구상’에서 처음으로 대학교육적성시험을 제안하였다. 대학교육적성시험은 미국의 학업적성검사인 SAT 모델을 기준으로 발전되었다. 전형자료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언어, 수리탐구영역, 외국어(영어)영역별로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라고 할 수 있다.

황정규(1994)에 의하면, 언어영역에서는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언어능력을 측정하고, 국어교과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등 다양한 교과영역에서 출제하였다. 수리·탐구영역에서는 주어진 자료에 원리와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수학교과 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영역에서 출제하였다. 외국어(영어) 영역에서는 사실적·

추론적·비판적 영어능력을 측정하고, 영어가 대학교육에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고교내신성적은 고등학교 3년간의 학업성적인데, 실질적인 반영비율을 높여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예방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자주성과 권위를 보장한다는 입장에서 그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하여 30-40% 이상을 의무적으로 높이고 내신등급도 10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했다.

끝으로 대학별 필답고사는 대학의 특성 또는 계열별·학과별 특성상 별도의 수학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때 대학별로 별도의 고사를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시과목은 대학이 결정하도록 하는데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준거로 하여 사고력과 판단력, 탐구능력 등 고등정신능력을 주관식 위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1994학년도 입시의 경우 처음에는 많은 대학들이 본고사를 보겠다고 발표했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권위를 높이려는 교육부 측의 권유와 별도의 시험실시에 따르는 관리상의 문제 등을 들어 대학별 필답고사를 기피하였다. 특히 대학 입시 관련 부정사건으로 대학의 객관적 시험관리 능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사회 전반에 형성되었던 것도 본고사를 기피하게 된 주요 요인이었다. 1994년도 대학입시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특차모집과 복수지원제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복수지원제는 수험생이 희망하는 여러 개의 대학에 지원하여 합격하더라도 그 중에서 희망하는 대학을 선택하여 입학 할 수 있다. 수험생은 전기 모집기간 중 입시 일자가 다른 대학에는 복수로 지원할 수 있으며 두 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면 그 중에서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였다.

전기모집에 불합격한 학생은 후기 모집기간 중 입시 일자가 다른 대학에 복수로 지원할 수 있었으며 복수로 합격되면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였다. 음악·미술·체육 등 실기를 중요시하는 학과에서는 실기고사를 실시할 수 있었고, 과학 등 실험과 실습이 중요시되는 학과에서는 실험고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면접·구술고사와 신체검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신체검사는 대학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불합격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며, 면접·구술고사는 합격·불합격의 자료로만 활용하거나 총점의 10% 이내에서 입시사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사범계 대학과 사범계학과는 면접점수(10% 이내)와 교직적성 및 인성점수(10% 이내)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하였다.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그 실시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도 문제가 있고, 고교내신제와 대학별 고사 문제 등 현제도가 안고 있는 많은 특징만큼이나 시정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대입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않은 않다.

대학별본고사에서 논술형 문제가 출제되고, 수능시험에서도 선택형이기는 하지만 종합

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종전의 단순 암기식의 교육 방법으로는 이를 감당해 낼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논술고사의 실시는 논리적인 사고의 형성과 더불어 일부 과목에서나마 토론식 수업이 전개되는 등, 수업방법의 전환이 모색되기 시작하였으며 평가체제도 기존의 객관식 평가 유형에서 벗어난 주관식 평가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장려되는 등 학교현장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고교내신제의 경우는 단순히 고등학교 3년간의 교과 성적과 교육활동을 총점으로 계산하여 다시 전체 석차를 구성비에 따라 등급화 하였다. 이 방법은 하나의 점수로 획일화하여 인위적으로 등급화 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지나친 경쟁심을 조장해 입시경쟁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생활기록부가 도입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의 점수를 정규분포상의 면접 비율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는 스테나인방식을 적용했다.

2008년 이후의 입시제도는 대학수학능력고사와 입학사정관제, 내신제, 그리고 본고사를 병행하였다. 입학사정관제란 상급학교 입학지원자에 대해 입학사정관들이 입학 지원자가 제출한 다양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면접이나 논술고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자의 학업능력 뿐만 아니라 잠재가능성도 중시하여 선발하는 제도이다(백순근, 2011).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중 하나인 지나친 교과중심의 기계적 점수위주 학생선발방법이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대학의 설립이념과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진화된 전형방법으로 전환되었다(김병주 외, 2012).

입학사정관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본격화 되었다. 대선공약항목 중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 절반’에서 3단계 대입 자율화를 발표하고, 이에 ‘대학 강국 프로젝트’에서 대학관치 완전 철폐를 발표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가 주요 고등교육정책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대학입시 및 고등교육 관련 공약은 2008년 3월 주요 국정과제에서 구체화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의 1단계는 2009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 및 수능반영을 자율화하고, 학생선발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입학사정관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2단계는 2012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5개로 축소하는 것이다. 3단계는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 창의력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의 확산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제 주도하고 있던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기능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하게 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정일환 외, 2008).

입학사정관제의 평가영역은 교과관련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학교생활충실도 및 인·적성, 그리고 학습환경 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0a). 교과 관련 활동의 평가요소는 교과 성적, 학년별 성적 추이, 교과관련교내 수상실적, 그리고 방과 후 학교 활동 등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요소는 독서활동, 자격증 및 인증, 진로탐색·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그리고 방과후학교 활동 등이다.

입학사정관제의 일반적 전형 절차는 사전공지, 서류심사, 심층면접 및 토론, 최종선발의 절차를 거친다. 사전공지 단계에서는 전형의 취지, 지원자격, 선발기준 및 선발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9a), 서류심사 단계에서는 지원 자격 심사를 포함하여 학생이 제출한 각종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를 심사하였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 평가 방식을 활용하였다(청와대 정책소식, 2010). 이것은 입학사정관 1명이 학생을 일대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사정관, 교수 등 다수의 평가자가 동시에 한 학생을 평가하였다. 또한, 학생에 대한 평가자의 평정 점수 차이가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입학사정관제는 국가의 입학지원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현재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는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해당 자료는 수시모집 시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되었다. 대학별은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때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중 원하는 영역의 자료를 채택하였지만, 2015학년도에서는 등급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대학별 고사는 대학의 특수성과 계열 및 모집단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외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고사를 활용할 수 있었다. 대학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과거 국어·영어·수학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본고사 형태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c).

2013학년도 이전의 경우는 수시합격자도 정시나 추가모집에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이후에는 수험 기회의 형평성과 대학 입시 업무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수시모집 최종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을 금지시켰다. 수시모집 지원횟수는 본래 제한이 없었으나 과도한 입시경쟁과 접수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6회로 제한하였다.

3. 대학수학능력시험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학년도부터 대한민국의 대학 입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방법으로 도입되었다(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1993년은 전반적인 사회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대학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시작된 한해였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성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커다란 파급력이 있는 대학입시정책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시도되었다. 교육부는 1991년 4월 2일 새 입시제도를 확정발표 했고, 1992년 3월에

는 각 대학의 입시 요강 지침을 발표하였다. 1993년 2월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월 20일과 11월 16일에 실시하였다.

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3년 8월 20일 금요일과 11월 16일 화요일, 두 번 시행되었다(국립교육평가원, 1993). 그 이전에 시행되었던 학력고사의 문제 유형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유형이었다. 또한 1회 시행 당시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문제를 풀었으나 2회 시행부터는 문과와 이과로 구분되고 선택 과목이 생겨났다.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년 11월 23일에 시행되었다(국립교육평가원, 1994). 이때부터 2006학년도 수능까지의 시험일은 수요일이었다. 전년과 달리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단 1회만 시행되었다. 언어 영역과 외국어(영어) 영역은 계열에 무관하게 공통 출제하였고, 수리 영역과 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약 25% 정도가 계열별로 구분 출제되었다. 계열별 출제로는 인문계에 사회문화·세계지리가 추가되고, 자연계에 수학Ⅱ·물리·화학이 추가되었다. 또한, 문항당 배점을 다양화하여 언어 영역과 수리·탐구 영역Ⅱ는 0.8, 1, 1.2점, 수리·탐구 영역Ⅰ은 1, 1.5, 2점, 외국어(영어) 영역은 0.6, 0.8, 1점으로 하였다. 성적은 12월 21일에 통지되었다. 수험번호를 잘못 부여하는 행정 착오로 수험생의 성적이 뒤바뀌어 통보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6년 11월 13일에 시행되었다(국립교육평가원, 1996).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학년도부터 1996학년도까지 시행되었던 대학 본고사가 폐지되고 수시모집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수능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또한 전년도(1996학년도)의 배점이 200점 만점에 언어 60, 수리탐구Ⅰ 40, 수리탐구Ⅱ 60, 외국어 40 이었던 데 반면 1997학년도부터는 총점이 두 배로 늘어났고, 각 과목당 배점 역시 두배로 늘어났다.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7년 11월 19일에 시행되었다(국립교육평가원, 1997). 이 날은 대한민국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날이기도 하다. 또한 제5차 교육과정에 따른 마지막 수능이자 국립교육평가원 주관한 마지막 수능이었으며, 전체적으로 수능 응시인원이 이전에 치뤄진 수능들보다 훨씬 많아졌다. 이전까지 치러진 역대 수능들보다 훨씬 쉬웠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만점자는 나오지 않았다. 성적은 12월 20일에 통지되었다.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8년 11월 18일에 시행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처음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한 시험이며,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최초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었다.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9년 11월 17일에 시행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 역대 수능에서 응시자가 가장 많았던 시험이다. 성적은 12월 17일에 통지되었으며, 역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상 2번째 만점자가 배출되었다.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0년 11월 15일에 시행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난이도가 전년도에 비해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대표적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세 간에서 ‘물수능’이라는 별칭을 붙일 정도로 매우 쉬운 난이도를 보였다. 당시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만점자가 66명이나 배출되었다. 이 때문에 당시 다수생들이 서울, 수도권 대학에 낙방하는 기이한 일도 발생하였다. 특히 역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초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가 내신과 제2외국어영역 변환표준점수 상의 불이익으로 서울대학교의 특차전형에 떨어지는 일도 발생하였다.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1년 11월 7일에 시행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제6차 교육과정 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며, 난이도가 대폭 하락했던 전년도와 달리 이번에는 난이도가 매우 높아져서 세간에서 ‘물수능’이라는 별칭을 붙인 수능시험이었다. 그 여파로 2002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 만점자는 나오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수능 응시인원이 많이 줄었으며, 전체 수험생의 평균점수가 66.5점, 상위 50%가 66.8점으로 폭락하였다. 한편, 수능시험의 특차 전형이 폐지되었으며, 2002학년도부터 총점대신 수능 9등급제가 도입되었다.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2년 11월 6일에 시행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2003학년도 수능까지는 수험생에게는 원점수만 소수점까지 표기해 통보하고 대학에는 수험생의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을 모두 반올림해 제공했다가 점수 역전 현상으로 인한 당락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어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3년 11월 5일에 시행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 제6차 교육과정 마지막 수능이었으며, 역대 수능시험 사상 복수정답이 인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언어영역 17번 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했으며, 또한 수능시험 출제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는 파문이 일어나 수능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예상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논란도 있었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4년 11월 17일에 시행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2005학년도 수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 이유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최초의 수능 시험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로는 점수 배점으로, 기존의 영역별 120,80,120,80, 400점 만점의 제도에서 100,100,100,50(과목별), 500점 만점으로 변경되었고, 표준 점수는 그 배로 하며, 표준편차를 20으로 규정하였다. ‘선택제 수능’의 도입으로 인해 성적표에도 원점수를 없애고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으로만 기재하였고, 총점이란 것이 사라지면서 원점수 만점자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

제7차 교육과정의 수능시험에서는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로 구분된 계열을 없애고, 3교시에 시행되었던 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과 4교시에 시행되었던 외국어 영역의 시험시간이 서로 맞바뀌었고, 수리 영역의 경우 수준에 따라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하였다. 수리 영역의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2, 3학년때 배우는 심화 선택 과목에서 직접적으로 출제하며

(국민 기본 공통 과정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간접적으로 출제), 가형에 선택과목(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이 포함되고, 주관식 문제도 종전의 6문제에서 9문제로 늘렸다. 정답도 최대 3자리로 늘리고, 음수 정답과 소수점 정답을 삭제하였다. 제2외국어 과목은 선택 과목을 8개로 늘리는 (기존의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에 한문과 아랍어 추가) 동시에, 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은 기존의 공통부분(자기 과의 과목은 72점, 그 반대는 48점으로 부여)을 없앴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5년 11월 17일에 시행할 예정 이었으나, 부산 APEC 정상회담 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정도 늦춰진 2005년 11월 23일에 시행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이 수능은 수요일에 실시한 마지막 수능이며, 지나치게 쉬워진 난이도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언어 영역의 경우 100점 만점 중 95점 이상이 12% 이상을 차지하는 등 변별력에 큰 문제가 생겼다. 수리 영역의 경우, '가'형과 '나'형의 난이도 차이로 인해 서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았다. 외국어 영역은 전년도 수능에 비하여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 간의 지나친 난이도 차이로 인하여 '로또수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6년 11월 16일에 시행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목요일에 실시된 첫 번째 수능이다. 외국어 영역과 수리 나형은 쉽게 출제된 반면, 언어 영역과 수리 가형 그리고 탐구 영역은 어렵게 출제되었다. 성적은 12월 13일에 통지되었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7년 11월 15일에 시행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2008학년도에는 수능 성적표에 표시되는 항목이 대폭 줄어들었다. 성적표에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삭제하고, 9개의 등급만 표기되었다. 이와 같은 혼란으로 인해 2008학년도 수능은 역대 수능에서 응시자가 가장 적었다. 언어 영역 전체 문항이 기존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줄어들었으며(듣기 평가는 6문항에서 5문항으로 축소), 이에 따라 언어 영역의 시험 시간도 전년도보다 10분 단축되었다. 당초 12월 12일에 성적을 통지하기로 하였지만, 등급 제도의 불안등을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는 발표를 5일 앞당겨 12월 7일 공식적으로 성적을 통지하였다.

수능 이후 등급제 수능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단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려 결국 점수 차이가 1점의 수배에 이르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일부 영역에서는 한 문제만 틀렸음에도 1등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12월 22일, 한국물리학회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물리Ⅱ 11번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한국물리학회가 내놓은 입장에 대해 "물리학회는 수험생들이 배우는 고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고려하지 않은 물리학적 관점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8년 11월 13일에 실시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사회탐구 영역 중 국사 과목에 한해 200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도입된 시험이기도 하다.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전 영역 시험의 난이도가 전년도 시험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제 2외국어에서 아랍어 열풍이 처음으로 분 수능이기도 하다. 2009학년도 수능부터는 2008학년도 수능에 시행되었던 수능 등급 단독 표기제가 다시 폐지되었다.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9년 11월 12일에 시행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예년 수능과는 여러 면에서 상당히 달랐으며, 1학기 수시모집을 폐지해 예년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수능 시험에 응시했다. 난이도는 속칭 물수능이라 불릴 정도로 약간 쉬웠으나 3영역, 전영역 만점자는 없었다. 이번 수능에서는 외국어 영역이 지난 해 보다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0년 11월 11일에 시행할 예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이었지만,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날짜와 겹치는 바람에 일주일 후인 2010년 11월 18일로 연기하여 시행하였다. 2011학년도 수능의 지원자는 712,777명, 응시자는 668,339명으로 집계되어,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5학년도 수능 이래로 최다 응시자였다. 수리 영역에 한해 제7차 교육과정 마지막 시험이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와의 연계율은 70% 이상이었으며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을 적절히 안배하여 변별력과 연계율을 모두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언어 영역, 수리 영역 가형, 외국어 영역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특히 수리영역 가형의 경우에는 역대 최저 원점수 평균을 기록하였다. 전 영역 만점자는 없었으나, 3과목 영역 만점자가 1명이 나오기도 했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에서는 아랍어 I의 응시자가 처음으로 감소세에 들어섰으나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3회 연속으로 해당 영역 최다 응시자 과목을 차지하였으나 표준점수 최고점이 기존 100점에서 90점으로 10점 하락했다. 그 동안 최저 응시자였던 러시아어 I은 독일어 I보다 약간 명이 더 응시하여 최저 응시자 과목이 뒤바뀌었다. 성적은 12월 8일에 통지되었다.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2011학년도 6월과 9월의 대수능 모의평가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오프라인 종이 성적표를 발송하였으나 2011학년도 수능부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온라인으로 통보를 하고 학생들은 응시 원서를 제출한 학교나 지역 교육청에 온라인으로 통보된 성적 자료를 출력 받아 배부 받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1년 11월 10일에 시행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시행된 첫 번째 수능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국교육방송공사와의 연계는 유지하였다. 2012학년도 수능의 가장 큰 변화는 수리 영역 범위 조정과 탐구 영역 과목 수의 축소이다. 2012학년도 수능부터 수리 영역에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

어 가형은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공통적으로 수학I, 수학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과목을, 나형은 수학I과 미적분과 통계 기본 과목을 보게 되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2년 11월 8일에 시행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시행된 마지막 수능이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와의 연계와 만점자 1% 달성 목표는 유지되었다. 그러나 2013학년도 수능에서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였다. 언어가 어렵고 외국어가 쉬웠던 작년과 반대로 이번에는 언어가 지나치게 쉬워져(만점자 약 14,000여명, 2.36%) 한 문제를 틀려도 1등급을 못 받을 정도였으며 반대로 외국어는 작년보다 난이도가 높아졌다. 수리 영역 가형은 작년에 비해 만점자 비율이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1%에 크게 못 미쳤다. 그나마 수리 영역 나형이 만점자 비율이 1%에 거의 근접하였다.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들쭉날쭉했다. 사회탐구에서는 3.15%의 만점자를 배출한 윤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이 만점자 비율이 1%를 넘지 못했으며, 특히 경제지리에서는 0.15%의 만점자에 그쳤다. 과학탐구에서는 지구과학I은 응시자의 8%에 가까운 만점자가 나온 반면 생물II는 0.1%에도 못 미쳤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3년 11월 7일에 시행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시행된 첫번째 시험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으로 인해 만점자 1% 정책은 폐기되었으나, 한국교육방송공사와의 연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2014학년도 수능은 영역의 명칭이 언어 영역에서 국어 영역으로, 수리 영역에서 수학 영역으로,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영어 영역으로 변경되었으며, 난이도를 달리하여 A/B형의 수준별 문제지를 제공하였다. 또한,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 문제수가 50문제에서 45문제로 축소되었다. 국어 영역의 듣기 평가는 폐지되고, 영어 영역의 듣기 평가의 문항 수는 17문제에서 22문제로 확대했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4년 11월 13일에 시행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전년도와 달리, 영어 영역에서 난이도에 따른 수준별 시험은 폐지되었으며, 듣기 평가도 22문항에서 다시 5문항이 줄어든 17문항으로 출제되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한국교육방송공사와의 연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수학 영역, 영어 영역 난이도가 매우 쉬웠으며 국어 영역 B형 및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은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성적은 12월 3일에 통지되었다. 그러나 영어 영역 25번 문항, 생명과학II 8번 문항에서 복수정답 논란이 있었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5년 11월 12일에 시행할 예정이며, 성적은 12월 2일에 통지할 예정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6년 11월 17일에 시행할 예정이며, 성적은 12월 7일에 통지할 예정이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된다. 국어 영역에서 A/B형이 사라지고 통합

된다. 수학 영역에서 교과과정이 개정되므로 시험 범위가 조정되며, 문·이과 통합 안은 2021년으로 유보되었다. 수학 가형의 출제과목은 미적분Ⅱ·확률과 통계·기하와 벡터이며, 나형의 출제과목은 수학Ⅱ·확률과 통계·미적분Ⅰ이다. 한국사가 사회탐구영역에서 분리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총 9등급의 절대평가로 성적을 매긴다. 직업탐구 영역 선택 과목 일부가 조정되며, 최대 응시 과목 수도 2개로 확대된다.

4. 입학사정관제

2008학년도 입학사정관제는 「2007년도 대학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신청한 15개 대학 중 운영여건, 운영계획, 정착·발전 가능성을 평가하여 10개교를 선정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7). 선정대학은 국립대 2개교, 사립대 8개교이며, 지원금액은 총 18억 9천원으로 최대 4억원에서 최하 1억3천5백만원을 차등지원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몇 점의 점수차 보다는 대학 입학 후 발휘할 잠재능력을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대입전형 전문가가 학생 선발에 관여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시하면서 학생부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었고, 입학사정관은 연중 입학업무를 전담하게 되므로 대학 입학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대학은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문주천, 2009).

대학교육협의회는 입시가 끝난 후 입학제도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선정대학에 대한 현장점검과 컨설팅 활동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컨설팅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국내현실에 맞는 입학사정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입학사정관제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학간 상호의견 교환 및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학년도 입학사정관제는 「2008년도 대학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응모한 대학 중 지원 자격기준을 갖춘 40개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금액 158억원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a). 작년보다 크게 확대된 실시대학 수와 지원금액은 그 당시 정부 입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는 「2009년도 대학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응모한 대학 중 지원 자격기준을 갖춘 47개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금액 236억원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 2009a).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개설·운영 지원대학으로 5개교를 선정하였다. 2010학년도 전형에서는 대학에서 활동하는 전임 입학사정관 수가 203명에서 360명으로 늘어났고,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전형의 선발인원은 4000명에서 20,0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대학들은 전임사정관과 함께 사회 저명인사, 퇴직 교수·교원, 학내 교수 및 입학

업무 경험자 등으로 비전임 입학사정관들을 대거 위촉, 입학사정관 직무교육을 거쳐 대입 전형 기간에 적극 활용하였다. 입학사정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학생의 성적뿐 아니라 적성과 열정,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점수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기대하고 되었다.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제는 「2010년도 대학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지원한 대학 중 60개 대학을 선정하고, 총 사업비 325억원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회, 2010a).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개설·운영 지원대학으로 작년보다 2개교가 늘어난 7개교를 선정하였다.

2012학년도 입학사정관제는 「2011년도 대학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지원한 대학 중 60개 대학을 선정하고, 총 사업비 325억원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회, 2011a).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개설·운영 지원대학으로 작년보다 2개교가 늘어난 9개교를 선정하였다. 입학사정관제의 도입배경은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사교육을 줄이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제는 「2012년도 대학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지원한 대학 중 66개 대학을 선정하고, 총 사업비 363억원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회, 2012a). 선정된 66개 대학 중에서 교원양성대학 8개교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개설·운영 지원대학으로 작년보다 1개교가 줄어든 8개교를 선정하였다.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제는 「2013년도 대학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지원한 대학 중 66개 대학을 선정하고, 총 사업비 395억원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회, 2013a). 선정된 66개 대학 중에서 교원양성대학 8개교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개설·운영 지원대학으로 작년과 동일한 8개교를 선정하였다.

2015학년도 입학사정관제는 「2014년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지원한 대학 중 65개 대학을 선정하고, 총 사업비 600억원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회, 2014a). 하지만 작년까지 있었던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개설·운영 지원대학은 없어졌다. 2015학년부터 입학사정관제 용어가 없어지고 학생부(종합)이라는 전형유형이 생기면서 입학사정관들이 해당 전형을 통해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5. 2015학년도 거점국립대학 수시 입시 전형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3b)와 전국 9개 거점국립대의 수시모집요강(2014)에 의하면, 2015학년도 수시 입시전형의 모집 시기는 강원대학교(춘천)의 경우는 9.6~9.12, 경북대학교의 경우는 9.15~9.18, 경상대학교의 경우는 9.12~9.18, 부산대학교의 경우는 9.15~9.18, 전남대학교의 경우는 9.11~9.16, 전북대학교의 경우는 9.11~9.16, 제주대학교의 경우는 9.11~9.17, 충남대학교의 경우는 9.11~9.16, 충북대학교의 경우는 9.11~9.16 였다.

대학별고사는 논술고사, 적성고사, 면접고사, 예체능 미 실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강원대학교·전북대학교·충남대학교, 그리고 충북대학교의 경우는 예체능 미실시, 경북대학교와 경상대학교, 그리고 제주대학교의 경우는 면접고사실시, 부산대학교의 경우는 논술고사 실시, 전남대학교의 경우는 면접고사와 예체능 미실시를 채택하였다. 학생부의 100%전형은 부산대학교, 제주대학, 충남대학교, 그리고 충북대학교에서 활용되었다. 실기전형은 경북대학교, 그리고 부산대학교에서 채택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강원대학교(춘천),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그리고 충북대학교에서 채택되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은 전 과목 반영, 국·영·수·사·과 전 과목 반영, 국·수·영·사(과) 전 과목, 일부교과목 반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 과목 반영 대학교는 제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이다. 국·영·수·사·과 전 과목 반영 대학은 전남대학교와 충북대학교이다. 국·수·영·사(과) 전 과목 반영 대학은 강원대학교(춘천), 경상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그리고 전북대학교이다. 일부교과목 반영 대학은 강원대학교(춘천),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그리고 전북대학교이다.

6. 2015학년도 거점국립대학 정시 입시 전형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3b)와 전국 9개 거점국립대의 정시모집요강(2014)에 의하면, 2015학년도 정시 입시전형의 모집시기는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된다. 각 대학의 모집시기는 강원대학교(춘천) 가군, 경북대학교 가군과 나군, 경상대학교 가군과 다군, 부산대학교 가군, 전남대학교 가군과 나군, 전북대학교 가군과 나군, 제주대학교 나군과 다군, 충남대학교 가군과 나군, 충북대학교 가군이다.

전형유형은 학생부(교과) 유형, 학생부(종합) 유형, 수능 유형, 실기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학생부(교과) 유형을 실시하는 대학교는 전북대학교이다. 학생부(종합) 유형을 실시하는 대학교는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이다. 수능 유형을 실시하는 대학교는 강원대학교(춘천),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

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그리고 충북대학교이다. 실기 유형을 실시하는 대학교는 강원대학교(춘천),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그리고 충북대학교이다. 입시전형의 지원자격을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한정해 놓은 고른기회 입학정책을 실시하는 대학은 강원대학교(춘천),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그리고 충북대학교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지표는 표준점수, 백분위, 그리고 등급을 채택할 수 있다. 강원대학교(춘천)와 제주대학교, 그리고 충북대학교는 백분위만 채택하였다.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그리고 충남대학교는 표준점수만 채택하였다. 부산대학교는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채택하였다. 다단계 선발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반영 방법은 대학교의 모집단위별로 다양하게 채택하고 있다. 강원대학교(춘천)는 5가지 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국어B·수학A·영어·사/과탐구(택1), 국어A·수학A/B(택1)·영어·과학탐구, 국어A·수학B·영어·과학탐구, 국어A/B(택1)·수학A/B(택1), 국어A/B(택1)·영어 이다. 경북대학교는 5가지 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국어A·수학B·영어·과학탐구, 국어A/B(택1)·수학A/B(택1)·영어·과학탐구, 국어A/B(택1)·수학A/B(택1)·영어·사/과탐구(택1), 국어B·수학A·영어·사회탐구, 국어B·수학A·영어·과학탐구 이다. 경상대학교는 3가지 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국어A·수학B·영어·과학탐구, 국어A·수학B·영어·사/과탐구(택1), 국어A/B(택1)·수학A/B(택1)·영어·사/과탐구(택1), 국어A/B(택1)·영어·사/과탐구(택1) 이다. 부산대학교는 3가지 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국어A·수학B·영어·과학탐구, 국어B·수학A·영어·사회탐구, 국어A/B(택1)·영어 이다. 전남대학교는 3가지 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국어A·수학B·영어·사/과탐구(택1), 국어A/B(택1)·수학A/B(택1)·영어·사/과탐구(택1), 국어A/B(택1)·영어·사/과탐구(택1) 이다. 전북대학교는 3가지 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국어A·수학B·영어·사/과탐구(택1), 국어A/B(택1)·수학A/B(택1)·영어·사/과탐구(택1), 국어B·수학A·영어·사회탐구이다. 제주대학교는 6가지 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국어A·수학B·영어·과학탐구, 국어A/B(택1)·수학A/B(택1)·영어·과학탐구, 국어A/B(택1)·수학A/B(택1)·영어·사/과탐구(택1), 국어B·수학A·영어·사/과탐구(택1), 국어A/B(택1)·수학A/B(택1)·영어, 국어A/B(택1)·영어 이다. 충남대학교는 3가지 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국어A·수학B·영어·과학탐구, 국어A/B(택1)·수학A/B(택1)·영어·사/과탐구(택1), 국어A/B(택1)·영어·사/과탐구(택1) 이다. 충북대학교는 4가지 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국어A·수학B·영어·과학탐구, 국어A/B(택1)·수학A/B(택1)·영어·사/과탐구(택1), 국어B·수학A·영어·사/과탐구(택1), 국어A/B(택1)·영어·사/과탐구(택1)이다.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내용은 학년별 반영비율과 과목별 반영교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원대학교(춘천)은 학년별 반영비율을 1~3학년 합쳐서 100%로 규정하고 있다. 과목별 반영교과는 과목별 전체를 반영하여 2가지 방법을 채택하는데,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국어·영어·예체능이다. 경상대학교는 학년별 반영비율을 1학년 30%, 2~3학년 70%로 규정하고 있다. 과목별 반영교과는 과목별 상위2~3과목을 반영하여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의 1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IV. 논 의

1945년 이전의 입시제도는 제도적인 시험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지원자의 신분과 자격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신라의 국학에 입학하려면 15-30세인자, 대사(大舍)로부터 무위자(無位者)까지의 신분을 가진 사람만 입학이 가능하였다. 고려의 국자감과 대학, 그리고 율학·서학·산학의 입학자격도 신분에 따라 가능하였다. 조선 성균관의 입학자격은 생원과 진사과를 거쳐야 입학이 가능하였다. 1884년-1945년 입시제도는 개화사상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교육정책이 전개되었다.

1945년에서부터 1953년까지의 입시제도는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이루어졌다. 광복직후이었기 때문에 미 군정청의 영향이 컸으며, 총·학장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였다. 입시과목은 국어·영어·수학·사회를 필수과목 하고, 실업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선택과목으로 하여 입학할 수 있었다.

1954년에는 국가연합고사와 본고사로 이루어졌다. 도입배경은 일종의 예비시험 성격인 대학 입학 국가연합고사를 통하여 적격자를 선별하고, 대학별 본고사를 실시하여 최종 입학생을 결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입시부정사건으로 인하여 1년만에 백지화되었다.

1955년에서부터 1961년까지의 입시제도는 대학별 시험제도와 내신제(무시험)로 이루어졌다. 1955년에 대통령령으로 「대학설치기준령」이 공시되면서 대학입시제도가 대학별 선발제도로 환원되었다. 대학별 시험에서 입시과목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필수 네 과목, 학생선택 한 과목 이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내신제(무시험)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보조기록으로 성적을 심사하고, 반영 방법은 당해 총학장의 재량으로 결정하였다. 대학별 시험제의 경우는 고등학교 3년간의 성적 30%, 입학시험 성적 70%로 합격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무시험의 경우는 입학정원의 10%를 입학시킬 수 있었다.

1962년에서부터 1963년까지의 입시제도는 대학 입학국가자격고사제로 이루어졌다. 5·16군사혁명 이후 정보는 대학에 대한 불신과 강력한 통제를 전제로 하는 정책을 폈다. 이에 1961년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학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공포하면서 대학 입학 국가자격고사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입시제도 변화의 근본목적은 부정입학과 무능력자의

입학을 막고,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 자율성 침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1964년에서부터 1968년까지의 입시제도는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이루어졌다. 대학별 단독시험제는 국가가 입시에 관한 최소한의 지침만 정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교육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1969년에서부터 1980년까지의 입시제도는 대학 입학예비고사와 본고사로 이루어졌다. 대학 입학예비고사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기 전에 국가의 통일된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평가하여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역할을 하였다. 대학 입학예비고사는 대학입시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입학자 선정은 대학자체가 본고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었다.

1981년 입시제도는 대학 입학예비고사와 내신제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른바 7·30교육개혁조치를 발표하면서 지나친 학력주의가 불러온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핵심내용은 본고사 폐지하고, 예비고사 성적과 고교 내신성적으로 입학생을 선발하고 나아가서는 예비고사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형절차는 선시험→후지원의 형태로 하며 모집시기는 전기·후기로 나누어 무제한 복수지원이 가능하게 하였다.

1982년에서부터 1985년까지의 입시제도는 대학 입학학력고사와 내신제로 이루어졌다. 일종의 자격고사인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대학 입학 학력고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형요소로 포함시켰다.

1986년에서부터 1987년까지의 입시제도는 대학 입학학력고사와 내신제, 그리고 논술고사로 이루어졌다. 교육개혁심의회는 10대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특징적 내용은 창의력·작문력 등의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탈교과적이고 범교과적 성격의 논문식 시험인 논술고사를 실시하여 그 성적을 활용하는 것이다. 논술고사의 성적은 10% 이내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1988년에서부터 1993년까지의 입시제도는 대학 입학학력고사와 내신제, 그리고 면접으로 이루어졌다. 교육개혁심의회는 대학입시경쟁의 과열과 사교육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별로 독자적인 입학전형방법을 개발하도록 권고하였다. 그 결과로 논술고사의 폐지되면서 면접고사가 등장하였고, 선시험→후지원이 선지원→후시험제로 전환되었으며, 학력고사 문항에서 30%내외를 주관식으로 출제하도록 하였다.

1994년에서부터 2007년까지의 입시제도는 대학수학능력고사와 내신제, 그리고 본고사로 이루어졌다. 교육개혁심의회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을 제안하였고, 미국의 학업적성검사인 SAT 모델을 기준으로 삼았다. 대학교육적성시험은 대학에서 수확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하였다.

2008년부터의 입시제도는 대학수학능력고사와 입학사정관제, 내신제, 그리고 본고사로

이루어졌다. 입학사정관제란 대학 입학지원자에 대해 입학사정관들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면접이나 논술고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자의 학업능력 뿐만 아니라 잠재가능성도 중시하여 선발하는 제도이다.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중 하나인 지나친 교과중심의 기계적 점수위주 학생선발방법이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대학의 설립이념과 모집단위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선진화된 전형방법으로 전환되었다.

1945년부터 지금까지의 입시제도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광복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입시 평가방법은 해마다 변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화의 가장 큰 주안점은 국가가 주도하는 평가 방법인지, 아니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방법인지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학년도부터 대한민국의 대학 입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이 시험 제도는 7년간의 연구와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4학년도부터 적용되었다. 기존의 암기위주 입시제도를 개선하고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위해 언어영역, 수리탐구영역, 외국어영역으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3년 8월 20일과 11월 16일, 두 번 시행되었다. 8월 20일 시험에서는 문·이과 구분 없이 동일한 문제를 활용했으나, 11월 16일 시험에서는 문·이과를 구분하였고, 선택과목이 생겼다. 영역별 배점은 언어영역 60점, 수리·탐구 I 영역 40점, 수리·탐구 II 영역 60점, 외국어영역 40점이었으며, 총 200점 만점이었다.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년 11월 23일 시행되었다. 전년과 달리 1995학년도부터는 1회만 시행되었다. 문항당 배점을 다양화하고, 소수점 배정을 하였다. 19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5년 11월 22일 시행되었다.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6년 11월 13일 시행되었다. 수시모집이 신설되면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데 수능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영역별 배점은 언어영역 120점, 수리·탐구 I 영역 80점, 수리·탐구 II 영역 120점, 외국어영역 80점으로 기존의 두배로 되면서 총점이 200점에서 400점으로 변경되었다. 수리·탐구 I 영역에서 주관식 단답형 문제가 출제되고, 외국어 영역 듣기평가도 종전 10문제에서 17문제로 늘어났다.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7년 11월 19일 시행되었다. 제5차교육과정에 따른 마지막 수능이었으며, 국립평가원에서 주관한 마지막 수능이었다.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8년 11월 18일 시행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첫 번째 시험이었으며,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최초의 수능이었다. 계열별 선택과목 제도를 도입하면서, 표준점수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9년 11월 17일,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0년 11월 15일 시행되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2001학년도는 전년도에 비

해 너무 쉬운 난이도로 인해 사회문제로 까지 확산된 해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적 목적과 기능, 난이도에 대한 입장차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1년 11월 7일 시행되었다. 작년(2001년) 너무 쉬웠던 시험으로 인해 2002학년도에는 너무 어려운 수능이 문제가 되었다. 수능시험의 특차 전형이 폐지되었고, 2002학년도부터 총점대신 수능9등급제가 도입되었다.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2년 11월 6일 시행되었다. 그 이전부터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는 수험생에게는 소수점까지의 원점수만 통보하고, 대학에는 원점수·표준점수·백분위점수 등을 모두 반올림해서 제공하였다. 그로인해 점수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3년 11월 5일 시행되었다. 문제의 배점이 소수점에서 정수로 변경되었다. 제6차교육과정의 마지막 수능이었으며, 역대 처음으로 복수정답이 인정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자 명단 사전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4년 11월 17일 시행되었다. 제7차교육과정에 따른 최초의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점수 배점에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영역별 언어영역 120, 수리·탐구Ⅰ영역 80, 수리·탐구Ⅱ영역 20, 외국어영역 80으로 400점 만점이었으나, 언어영역 100, 수리·탐구Ⅰ영역 100, 외국어영역 100, 수리·탐구Ⅱ영역 과목별 50, 으로 총 500점 만점으로 변경되었고, 표준 점수 그 배로 하며, 표준편차는 20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초로 휴대폰을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5년 11월 23일 시행되었다. 전반적으로 각 영역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해였다. 언어영역은 지나치게 쉬웠고, 수리영역은 가형과 나형의 난이도 차이가 심했으며, 외국어 영역은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탐구영역은 과목간의 난이도 차이로 '로또수능'이라는 말도 생겼다. 2005학년도에 발생한 입시부정 때문에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대리시험 방지용으로 수능 샤프와 OMR 답안지 필적 확인이 처음 도입되었다.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6년 11월 16일 시행되었다.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7년 11월 15일 시행되었다. 성적표에 등급만을 표기하여 활용하였다. 언어영역의 전체 문항이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줄어들었고, 시험 시간 역시 10분 단축되었다. 과학탐구 물리Ⅱ 11번 문제의 복수정답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8년 11월 13일 시행되었다. 제2외국어 시험에서 아랍어 열풍이 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성적표에는 등급 단독표기제가 폐지되고, 원점수를 제외한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모두 표기되었다.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9년 11월 12일 시행되었다. 1학기 수시모집을 폐지하여 예년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다. 지구과학Ⅰ 19번 문제가 복수

정답이 인정되었다. 문제지는 미리풀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겉표지를 추가하였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0년 11월 18일 시행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이후 최대의 지원자였다. 수리영역은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마지막 시험이었다. EBS와의 연계율은 70% 이상으로 맞추고, 문항난이도 조절을 통해 변별력과 연계율을 모두 달성하고자 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표는 2011학년도 이전 오프라인으로 발송하다가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통보하고, 학생들은 출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1년 11월 10일 시행되었다. 2007 개정교육과정으로 시행된 첫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가장 큰 변화는 수리영역의 범위 조정과 탐구영역의 과목 수를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한 것이다. 그리고 채점방식이 OMR 판독기 방식에서 이미지 스캐너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2년 11월 8일 시행되었다. 2007 개정교육과정으로 시행된 마지막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3년 11월 7일 시행되었다.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시행된 첫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종전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달라진 점은 영역의 명칭이 교과목에 맞게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언어영역은 국어영역으로, 수리영역은 수학영역으로, 외국어영역은 영어영역으로 변경되었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4년 11월 13일 시행되었다. 영어 영역은 수준별 시험을 폐지하였고, 듣기평가도 22문항에서 다시 17문항으로 축소하였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5년 11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며,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6년 11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며, 국어영역의 수준별 출제가 폐지된다. 한국사는 사회탐구영역에서 분리되어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것이다. 2011개정 교육과정을 따르게 될 것이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7년 11월 16일에 시행될 예정이고, 영어 영역에서 절대평가가 도입될 예정이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8년 11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제는 기존의 암기위주 입시제도를 개선하고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여 단편지식이 아닌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초기 평가영역은 언어영역, 수리탐구영역, 외국어영역으로 나누어졌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면서 영역별 배점, 평정의 방법, 난이도 조절등의 문제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한 번의 시험으로 현재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였고, 수험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2008학년도 입학사정관제는 「2007년도 대학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신청한 15개 대학 중 10개교를 선정하였다. 지원금액은 총 18억 9천원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였다. 입학사정관제는 입학 후 발휘할 잠재능력을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관심을 가졌

고, 대입전형 전문가가 학생선발에 관여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시하면서 학생부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입학사정관은 입학업무를 전담하게 되므로 대학 입학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대학은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2009학년도 입학사정관제는 「2008년도 대학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신청한 대학 중 40개교를 선정하였다. 지원금액은 총 158억원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였다. 정부는 입시 개혁에 의지를 보였다.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는 「2009년도 대학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신청한 대학 중 47개교를 선정하였다. 지원금액은 총 236억원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였다. 그리고 5개교를 선정하여 「입학사정관 전문양성·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전임입학사정관수는 203명에서 360명으로 늘어났고, 선발인원은 4000여명에서 20,0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제는 「2010년도 대학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신청한 대학 중 60개교를 선정하였다. 지원금액은 총 325억원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였다. 그리고 7개교를 선정하여 「입학사정관 전문양성·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2학년도 입학사정관제는 「2011년도 대학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신청한 대학 중 60개교를 선정하였다. 지원금액은 총 325억원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였다. 그리고 9개교를 선정하여 「입학사정관 전문양성·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제는 「2012년도 대학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신청한 대학 중 66개교를 선정하였다. 지원금액은 총 363억원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였다.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제는 「2013년도 대학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신청한 대학 중 66개교를 선정하였다. 지원금액은 총 395억원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였다. 그리고 8개교를 선정하여 「입학사정관 전문양성·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5학년도 입학사정관제는 「2014년도 대학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신청한 대학 중 65개교를 선정하였다. 지원금액은 총 600억원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하였다. 입학사정관제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기게 되었다.

입학사정관제는 시험지를 통해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입학사정관이라는 전문가를 통해 고등학교 생활 전반적인 모습을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여 학생의 현재보다는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전국 거점 국립대학의 2015학년도 수시 입시전형의 모집시기는 9.6~9.18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기 전이다. 대학별고사는 논술고사, 적성고사, 면접고사, 예체능 미 실시 방식을 대학 자율적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강원대학교(춘천),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그리고 충북대학교에서 채택되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은 전 과목 반영, 국·영·수·사·과 전 과목 반영, 국·수·영·사(과) 전 과목, 일부교과목 반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 과목 반영 대학교는 제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이다. 국·영·수·사·과 전과목 반영 대학은 전남대학교와 충북대학교이다. 국·수·영·사(과) 전 과목 반영 대학은 강원대학교(춘천), 경상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그리고 전북대학교이다. 일부교과목 반영 대학은 강원대학교(춘천),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그리고 전북대학교이다.

전국 거점 국립대학의 2015학년도 정시 입시전형의 모집 시기는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누어, 대학 자율적으로 채택하였다. 전형유형은 학생부(교과) 유형, 학생부(종합) 유형, 수능 유형, 실기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학생부(교과) 유형을 실시하는 대학교는 전북대학교이다. 학생부(종합) 유형을 실시하는 대학교는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이다. 수능 유형을 실시하는 대학교는 강원대학교(춘천),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그리고 충북대학교이다. 실기 유형을 실시하는 대학교는 강원대학교(춘천),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그리고 충북대학교이다. 입시전형의 지원 자격을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한정해 놓은 고른 기회 입학정책을 실시하는 대학은 강원대학교(춘천),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그리고 충북대학교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지표는 표준점수, 백분위, 그리고 등급을 채택할 수 있다. 강원대학교(춘천)와 제주대학교, 그리고 충북대학교는 백분위만 채택하였다.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반영 방법은 대학교의 모집단위별로 다양하게 채택하고 있다. 강원대학교(춘천)는 5가지 방법을, 경북대학교는 5가지 방법을, 경상대학교는 3가지 방법을, 부산대학교는 3가지 방법을, 전남대학교는 3가지 방법을, 전북대학교는 3가지 방법을, 제주대학교는 6가지 방법을, 충남대학교는 3가지 방법을, 충북대학교는 4가지 방법을 채택하였다.

수시 모집인원은 9개 대학교 전체 21,140명 중에서, 경북대학교가 3,0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대학교가 771명으로 가장 작았다. 정시 모집인원은 9개 대학교 전체 14,862명 중에서, 경북대학교가 2,2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대학교가 661명으로 가장 작았다. 이와 같이 살펴본 결과, 2015학년도 수시와 정시 모집은 전형 간소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수준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입학사정관제로 인해 수험생들이 해당 대학의 전형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변화과정과 수시-정시 전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입시에 관심이 많은 학생-학부모-교사 등에게 입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1945년 이전의 입시제도와 이후의 입시제도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입시제도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2015학년도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1945년 이전과 1945년 이후로 대별될 수 있다. 1945년 이전의 입시제도는 제도적인 시험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지원자의 신분과 자격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신라의 국학, 고려의 국가감, 조선의 성균관, 그리고 근대 개화기의 학교가 여기에 속한다.

1945년에서 1953년까지의 입시제도는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이루어졌다. 1954년의 입시제도는 국가연합고사와 본고사로 이루어졌다. 1955년에서 1961년까지의 입시제도는 대학별 시험제도와 내신제(무시험)로 이루어졌다. 1962년에서 1963년까지의 입시제도는 대학 입학 국가자격고사제로 이루어졌다. 1964년에서 1968년까지의 입시제도는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이루어졌다. 1969년에서 1980년까지의 입시제도는 대학 입학예비고사와 본고사로 이루어졌다. 1981년의 입시제도는 대학 입학예비고사와 내신제로 이루어졌다.

1994학년도에서 1998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제5차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체제로 200점 총점에서 400점으로 변경, 문항별 소수점 배점, 국립교육평가원 주관이었다. 1999학년도에서 2004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체제로 등급제의 도입, 수시 특차 폐지, 총점 대신 등급제 활용, 문항별 정수 배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이었다. 2005학년도에서 2011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체제로 400점 총점에서 500점으로 변경, 원점수 대신 표준점수와 백분위, 그리고 등급 활용, 1학기 수시모집 폐지이다. 2012학년도에서 2013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7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시험체제로 수리영역의 범위 조정과 탐구영역의 과목 수를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하였다.

2008학년도의 입학사정관제는 해당사업을 신청한 15개 대학 중 10개교를 선정하였다. 2009학년도의 입학사정관제는 해당사업을 신청한 대학 중 40개교를 선정하였다. 2010학년도의 입학사정관제는 해당사업을 신청한 대학 중 47개교를 선정하였다. 2011학년도의 입학사정관제는 해당사업을 신청한 대학 중 60개교를 선정하였다. 2012학년도의 입학사정관제는 해당사업을 신청한 대학 중 60개교를 선정하였다. 2013학년도의 입학사정관제는 해당사업을 신청한 대학 중 66개교를 선정하였다.

전국 거점 국립대학의 2015학년도 수시 입시전형의 핵심은 모집 시기, 대학별고사의 방식, 학생부종합전형의 실시 여부, 학생부의 반영 방법, 전형 내 복수지원가능 여부, 지역인재전형의 실시 여부, 학교장 추천제의 실시 여부이다. 정시 입시전형의 핵심은 모집 시기, 실시하는 전형 유형의 종류, 고른 기회 입학정책 실시 여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지표 반영 방법 및 영역별 반영 방법, 다단계 평가 전형 실시 여부, 학생부의 반영 방법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 자료들에 근거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대학입시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여 그 시대의 요구와 대학 자체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 개개인을 판단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제는 평가 과정상의 공정성이 중요하며, 학생-학부모-교사들에게 입시의 수월성 제공이 중요하다.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은 시기-모집단위-평가방법 등 학생들의 여건에 맞는 입학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지원자격의 제약조건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병운 (2001). **대학 입학제도 변화의 정치·사회적 과정과 함의**.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강창동 (2007). **한국 대학입시제도의 사회사적 변천과 특징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학술지 28권 p.83-113. 고려대학교.
- 김동석 (1998). **새 대학 입학전형제도에 내포된 정책주장의 논리적 분석학**.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병주, 이동혁, 김안나, 양명희, 이호섭, 김재춘 (2012). **입학사정관제 도입 5년 성과 및 발전과제**. 컨퍼런스 자료집 p.89~133, 한국대학교육협의.
- 김신복 (1998). **대학 입학 전형제도의 비교 및 개선방안**. 행정논총학술지 Vol.36 No.2, 서울대학교.
- 김신영 (2010).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 탐색**. 교육평가연구학술지 Vol.22 No.1, 한국교육평가학회.
- 김종철 (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남혜영 (2002). **입학사정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문주천 (2009). **입학사정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박민정 (2006). **신라 교육제도의 전개와 발전**.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백순근 (2011).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입학사정관제의 발전 방향 : 서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 이슈페이퍼.
- 백인순 (1985).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발전과정과 문제점에 관한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양길석 (2010).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과 쟁점 분석**. 교육평가연구학술지 Vol.23 No.4, 한국교육평가학회.
- 여은주 (2007). **고려시대의 교육**.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이만규 (2010). **조선교육사**. 서울: 살림터.
- 이제중 (2009). **대학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인식 및 기대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종재 (1995).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 정미경 (1981).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정일환, 이일용, 홍후조, 김병주, 조석훈, 김정희, 정현숙, 이호섭 (2008). **입학사정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탐색**.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최서운 (2011). 미술대학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미술대학 입학사정관제 도입
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황수미 (2012). 조선시대 성균관의 학제와 유생들의 활동.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황정규 (1994). 한국 대학 입학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사대논총 제48집, 서울대학교.

청와대정책소식 (2010). 입학사정관제, 이렇게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Vol.79 서울: 청와대

교육과학기술부 (2007). 대입전형 선진화를 위한 입학사정관제 지원계획. 보도자료

국립교육평가원 (1993). 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국립교육평가원 (1994).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국립교육평가원 (1995). 19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국립교육평가원 (1996).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국립교육평가원 (1997).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보도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7). 2007년 대학 입학사정관제 선정결과 발표. 보도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a). 2008년 대학 입학사정관제 선정결과 발표. 보도자료

_____ (2008b). 2010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보도자료

_____ (2008c). 제135차 이사회 의결사항.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9a). 2009년 대학 입학사정관제 선정결과 발표. 보도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9b). 2011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보도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0a). 2010년 대학 입학사정관제 선정결과 발표. 보도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0b). 2012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보도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a). 2011년 대학 입학사정관제 선정결과 발표. 보도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b). 2013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보도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a). 2012년 대학 입학사정관제 선정결과 발표. 보도자료
- _____ (2012b). 2014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보도자료
- _____ (2012c). 입학사정관제 도입 5년 성과 및 발전과제. 컨퍼런스자료집
-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a). 2013년 대학 입학사정관제 선정결과 발표. 보도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b). 201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보도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a).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보도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b). 2015학년도 수·정시 대학 입학정보. 분석자료집.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인터넷 사이트:

-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oe.go.kr>)
- 네이버 지식백과사전(<http://terms.naver.com>)
- 강원대학교(<http://home.kangwon.ac.kr>)
- 경상대학교(<http://www.gnu.ac.kr>)
- 경북대학교(<http://www.knu.ac.kr>)
- 부산대학교(<http://www.pusan.ac.kr>)
- 전남대학교(<http://www.jnu.ac.kr>)
- 전북대학교(<http://www.jbnu.ac.kr>)
- 제주대학교(<http://www.jejunu.ac.kr>)
- 충남대학교(<http://www.cnu.ac.kr>)
- 충북대학교(<http://www.chungbuk.ac.kr>)
-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 대학교육협의회(<http://www.kcue.or.kr>)
-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Abstract

**An Analysis on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s Change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Occasional-Regular Admissions**

Lee, Jae-tae · Moon, Sung-ha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 process of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and major contents of occasional and regular admissions along with providing basic resources that can help parents, students and admissions officers to understand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Specific research problems are what fundamental differences there are in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before 1945 and after 1945, how different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s from Admission Officer System, and what differences there are between occasional admission and regular admission in 2015.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ources,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suggested.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should be performed with the methods that can judge individual's ability and can satisfy both demands of the times and demands of the university. Regarding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differentiated evaluation methods that can judge each student need to be sought. Regarding Admission Officer System, fairness during the process of evaluation is important, along with providing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with convenience of college admission. For occasional and regular admissions, college admission opportunities that suit students' situations should be given to students in period, unit of recruitment and evaluation method, and methods that minimize constraint condition of qualification for application should be suggested.

Key words: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Occasional and regular admissions,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dmission Officer System